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마르 1,45)**



나병은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구약성경과 오랜 유대교 전통 안에서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병은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격리해야 하는 부정환 병이며(레위 13,45-46 참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몸은 살아 있지만 실상은 생명이신 하느님의 은총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취급받았습니다.(민수 12,12 참조) 공동체에서 격리된 환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자신의 병과 생명을 돌보아야 했고, 그렇게 소외와 멸시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까이하는 것조차 금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마르 2,27)

오늘 복음의 이 사건은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함구령’이 나오는 첫 번째 치유 기적입니다. 이보다 앞서 시몬의 장모(1,29-31)와 다른 많은 병자(1,32-34)를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지만, 치유된 이들이 함구령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를 곧바로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1,43)고 복음은 표현합니다. 그분의 명령은 두 가지인데, 첫째

는 일어난 일에 대한 ‘함구령’이고 둘째는 그 일을 증명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1.44) 그런데 치유된 사람은 예수님의 함구령을 거슬러 오히려 ‘선포자’가 됩니다. 치유된 이는 떠나가서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1.45)고 복음은 전합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알리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신약성경에서는 특히 복음 선포행위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치유된 이는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한 첫 선교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 곧 ‘선포의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된 이가 함구령을 어겨 예수님이 더 이상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셔야 했지만, 마르코는 그의 선포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으며,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지요. 더군다나 하느님 나라의 비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비밀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한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관계없이, 그 선포가 나에게 도움이 되건 손해가 되건 상관없이 진리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참 믿음은 나 혼자 간직해야 할 비밀이 아니라 선포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지녔다면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 세상을 향해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선교 열정이 부족하여 외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과묵한 삶을 산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일부 개신교 열성 신자들처럼 거리에 나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증거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치유된 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을 증거 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병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주님, 당신은 하고자 하시면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개운동 본당 황재모 안셀모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6주일이며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병환자가 도움을 청하자,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끝없는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나병환자의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용서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17번 '정의의 하느님'

본기도

†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레위기 13장 1절-2절.44절-46절

안 내 : 주님께서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한다고 이르십니다.

묵 상 :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부정한 이로 낙인찍혀도, 세상 밖으로 쫓겨나서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이에게는 구원의 환호로 감싸 주십니다.

화 답 송 :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제2독서 : 코린토 1서 10장 31절-11장 1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고합니다.

묵 상 :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를 놓아서는 안 되며, 모든 이에게 유익한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1장 40절-45절



알 림

■ 2018년 대신학교 입학성

- 김민우 베네딕도(춘양 본당)
- ※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제8기 안동교구 신앙대학 신입생 모집

- 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
- 원서교부 : 본당신부님 혹은 교구 홈페이지
- 입학정원 : 50명
- 수업료 : 18만원(입학금 3만원 포함)
- 과정 : 구약성경 입문, 신약성경 입문,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회사, 교회론, 윤리신학, 전례학, 교회법, 영성신학 (2년 과정)
- 교육장소 : 안동교구청 1층 강당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북부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2월 2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2월 24일/ 3월 10일/ 3월 24일/
4월 7일/ 4월 21일/ 5월 12일/
5월 26일/ 6월 2일 - 총 8회
- 장소 : 휴천동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북부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북부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신청 : 2월 14일(수)까지 사목국

■ 2018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 대상 :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방법 : 등록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접수
- 등록금 : 1인 50,000원(1년)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2018년 안동교구 “여학생 수도 성소자” 등록

- 대상 :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여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금 : 1인 50,000원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안동,의성지구 구역·반장연수

- 날짜 : 2월 11일(주일) 의성 성당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준비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갈전 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꽃감 판매

- 건시 1.5Kg 이상, 30개~40개 3만원
-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 예천 감만을 엄선하여 햇살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담당자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 계좌 : 농협 351-0922-4848-43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가톨릭상지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정시 2차 모집 : 2월 10일(토) ~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제주 4·3 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일시 : 2월 22일(목) 14:00 - 16:00
- 장소 : 명동성당 교스트홀
- 기조강연 : 강우일 베드로 주교(제주교구 교구장)
- 제1발제 : 4·3의 역사적 진실과 한국 현대사에서의 의미
- 제2발제 : 4·3의 철학적·역사적 의미
- 문의 : 흥선림 리더아(hlidia@hanmail.net)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2월 24일(토) 14:00
-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대상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문의 :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위기와 근심과 어려움에 빛 비추기

파경과 그 이후의 동행

243. 이혼하고 새로운 결합을 맺은 이들이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파문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파문당한 것처럼 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주의 깊은 식별이 필요하고, 깊은 존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차별을 느끼도록 하는 언행을 삼가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신앙과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증언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244. 다른 한편 많은 시노드 교부들은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면 무료로 진행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느리게 진행된다면 관련 당사자들을 괴롭히고 지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발표한 저의 최근 두 문서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는 “목자요 머리로 선임된 자기 교회 내에서 주교 자신이 그 사실 자체로써 자기에게 위탁된 신자들 사이의 재판관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실행은 교구 직권자들의 커다란 책임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교구 직권자들은 몇몇 사건을 직접 재판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신자들이 재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교회의 봉사에 전념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적절한 인원의 전문가 양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별

거한 이들이나 위기에 처한 부부들에게 가정 사목과 관련된 정보와 상담과 중재의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봉사는 또한 혼인 절차에 대한 예심 조사 단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제공 될 수 있습니다(「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 제2-3관 참조).”

245. 또한 시노드 교부들은 “별거나 이혼이라는 상황의 무고한 희생자인 자녀들이 겪게 되는 결과”를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고려에 앞서 자녀의 행복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이는 그 어떤 이해나 목적으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갈라진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문제와 이유로 갈라졌습니다. 삶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결별의 짐을 지거나, 상대 배우자에 맞서기 위한 볼모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함께 살지는 않을 지라도, 그들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하여 좋게 말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하여 좋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자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녀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의 내면적 삶에 해를 입히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자녀에게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6. 교회는 부부가 겪어야만 하는 갈등의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가장 취약한 이들, 곧 종종 침묵 속에서 고통 받는 자녀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감수성이 매우 발달되어 보이고 모든 정교한 심리적 분석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에 무뎠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됩니다. …… 우리는, 부부가 서로 학대하고 상처를 주어 혼인의 신의의 유대가 깨지는 지경에 이른 가정에서 자녀들의 마음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습니까?” 이러한 나쁜 경험은 자녀가 결정적인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 공동체는 새로운 결합을 한 이혼한 부모들을 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 양육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치 그들이 파문이나 당한 듯이 우리가 그들을 공동체의 삶에서 제외시킨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가능한 모든 것을 하라고 권유하고, 확신을 지니고 실천한 신앙의 본보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짐을 지고 있는 자녀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환대하는 친절할 얼굴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은 나쁜 일이며, 이혼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정에 관련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목 과제는 확실히 사랑을 강화하고 상처의 치유를 도와주어 우리 시대에 이러한 비극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새벽 출근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오단 목주를 돌리며, 찬 새벽공기에 잔뜩 몸을 움츠린 채 종종걸음으로 길모퉁이를 돌아 서니, 앞길이 대낮처럼 밝아서 나는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어제 밤에 하늘을 뚫고 나와 아직 귀가 하지 않은 채, 어두운 새벽길을 험히 비추며 곧, 땅으로 내려앉을 것만 같은 커다란 보름달과 마주하게 되다니, 어찌나 고맙고 반가웠던지 갑자기 행복을 잔뜩 품에 안은듯하였다.

요즘 새벽 여섯시 반쯤이면 어스름한 회색빛, 인적 드문 길을 혼자 집을 나서기가 조금은 두렵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새벽잠이 많아 새벽 미사를 드린 적은 여태껏 열 손가락 안에 들고, 일찍 떠나는 여행이나 성지순례를 가는 날이면 아예 밤을 꼬박 세기까지 하던 내가, 직장 때문에 이른 새벽길을 나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홀로 쓸쓸히 걷던 출근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기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보름달이 성모님의 품같이 느껴져 함께 걷는다는 기분에 외로움도 잊은 채, 나는 행복한 미소를 달에게 띄워 보낸다. 동짓달 보름이 하루 지난 뒤라 그런지 모양과 크기도 아직 보름달 그대로인 듯하다.

달이 밝히는 길을 따라 동네빵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가게 안엔 희미한 미등이 켜져 있었는데, 빵 굽는 냄새가 새벽 공기와 함께 코를 자극하였다. 아마도 이른 새벽부터 빵집에 불이 켜진 것은 오늘 빵 주문이 많은 것이 틀림없다고 혼자 생각에도 나는 외롭지 않았다.

버스 터미널 앞을 지나다보니, 텅 비어있는 첫차는 새벽 정적을 깨우며 연달아 두세대씩 목적지를 향해 줄지어 떠나고, 밤새 뽁뽁 얼어붙은 길바닥을 빗질 하고 계시는 환경 미화원 아저씨, 범절 없는 사람들의 흔적으로 널브러져 있는 담배꽂초들과 잡다한 쓰레기들을 쓸어 담고 계셨는데, 행복한 이 기분으로 수고하신다고 먼저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낯선 여인네의 아침인사가 어색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참고 지나갔다.

새벽을 방황하는 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 두 명이 그 시간에 불 켜진 오락실을 들어가고 있었다. 자식을 두고 있는 엄마로서 가슴이 짠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관한 마음만 시리다.

출근길에서 만난 세 사람을 떠올려보았다. 조용한 새벽공기가 무척 차게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더 재촉하였다. 빨간 신호등을 만났다. 아무도 보는 이도 없었고, 지나가는 차들도 없었다. 나 혼자 초록색등을 기다리고 서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져 그냥 건너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새벽길에 절대 무단횡단 하지 말라며 당부하던 남편 생각이 나서 참고 기다렸다.

며칠 전에 내렸던 눈이 도로변 여기저기 얼어붙어 있고, 찬바람이 시린 얼굴을 에어 싸게 하는 신호등 앞에서도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요즘 다리를 다쳐 집에서 재활치료중인 남편이 차려준 부드러운 계란찜과 청국장, 김치만으로도 감사했던 아침밥상에 어제 끓여 두었던 대추차 한 병을 따뜻이 데워 보온병에 담아 손에 쥐어주던 그 마음이 고마워 이것이면 오늘의 피로는 다 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초록색 불이 깜박 거렸다.

빠른 걸음으로 언 땅을 깨우며, 오늘을 시작하는 나에게, 성모님의 온아함이 함께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행복한 기분처럼 그들도 행복 했으면 좋겠다.

간단한기도만 드리고 집을 나섰던 나는, 오늘도 외롭지 않았던 새벽 출근길, 주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었던 그 길을 마음속에 담아본다.

길을 밝혀주던 보름달 덕분에 행복했었고, 길에서 만났던 환경 미화원 아저씨와 청소년들과, 남편이 챙겨준 아침밥상과 따뜻한 대추차 한 병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 주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 비록 찬바람 맞으며 홀로 걷는 새벽 길 일지라도 성모님 함께 하는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